

남미의 건설 환경과 시장 - 파라과이

America del Sur para Construccion y Ambiente - República del Paraguay



전진구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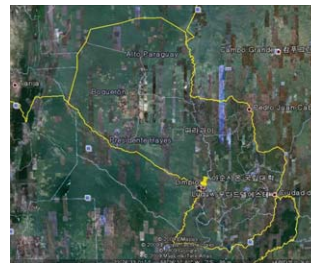
1. 남미



남미는 총칭 중남미(中南美)라고도 하는데, 북위 33°에서 남위 54°, 서경 34°에서 118° 사이에 위치한 세계 육지면적의 1/5을 차지하는 대륙이다. 30개 독립국과 카리브해의 영

국·미국·프랑스·네덜란드 식민지로 구성되지만 현지에서 의미하는 남미(연합)는 Brasi·Argentina·Uruguay·Chile·Peru·Paraguay·Bolivia·Equador·Colombia·Panama·Venezuela·Guyana·Surinam·Guayana Francesa 등 총 14개 국가로 남북 13,000km·동서 5,000km·총면적 2,053만km²에 인구가 약 5억 2438만 정도가 살고 있다.(2010년) 남미의 라틴아메리카란 명칭은 지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적·역사적 동질성을 표시하는 표현으로 이베로 아메리카라고도 불릴 만큼 에스파나문화의 영향이 압도적인데, 브라질외의 모든 국가들이 에스파냐(Latin & Catalrilla)어를 사용하고, 가톨릭이 국교이며, 풍속과 습관 등에 많은 공통성 가지고 있다. 또한, 남미는 광범위한 인종적 혼혈로 형성된 반도로 식민지사와 독립운동사 등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중산층 발달이 미약하며 빈부의 격차가 현저하다. 남미 대부분 나라들은 쿠데타와 독재정치의 악순환 속에서 국가적 마피아 집단이 존재하여 치안이 불안한 것 또한 공통적 요소지만 21세기에 들어서 농·목·축산업과 더불어 에너지·광업·관광자원화에 외국자본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2. 파라과이



1) 파라과이 개관

파라과이 국명은 어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 바다를 나타내는 "Para"와 기원을 나타내는 "Gua" 그리고 강을 의미하는 "Y"라는 용어로 "바다를 이루는 기원이 되는 강"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파라과이 공화국(República del Paraguay)은 남미 중앙 내륙국으로 브라질·아르헨티나·볼리비아와 접경에 위치하고, 국토면적 406,752km²로 한국의 약 4배이며, 총 인구가 약 6,233,500명(2010년도 통계청자료)이 살고 있다. 수도는 Asunción으로 상주인구가 약 52만 명이고, 주요도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의 자유무역 지역인 Ciudad del Este(CDE)와 아르헨티나와의 물류도시인 Encarnación 그리고 볼리비아 차코지역과의 교역도시인 Pedro Juan Caballero 등이다. 공식 언어는 라틴어와 토속 언어인 과라니(Guaraní)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농촌국민의 대다수가 토착어인 과라니어를 주로 사용하고, 종족구성은 Mestizo(스페인계와 토착민의 혼혈계)가 국민의 약 90%를 차지한다. 대륙성 아열대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22.5℃이고, 연평균 강우량이 1,500mm이며, 공식화폐는 과라니(Guaraní)를 사용한다.(1US\$ = 5,050 Gs : 2010년) 1811년 5월 15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정치형태를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고, 총 군사력은 7,000여명(육군 4,850명·해군 1,564명·공군 608명)이며, 1인당 GDP가 1,556US\$이다.(2010년 기준)



파라과이 대통령 궁



파라과이 화폐 과라니(Guaraní)

2) 파라과이 시장규모



아르헨티나와의 국경 Encarnación 브라질과의 국경 Ciudad del Este

파라과이 시장은 인구 약630만의 협소한 시장으로 수도인 아순시온을 통해 농촌지역으로 상품이 공급되는 구조이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Ciudad del Este(CDE)·Pedro Juan Caballero·Encarnacion은 자체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CDE의 경기는 파라과이 전체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상업 및 무역도시이다. 일반적으로 저축률이 낮고 소비성향이 강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저가상품을 주로 구매하는 편이며, 일명 Vende라고 하는 할부제도가 발달되어 가정방문 판매원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1) 파라과이를 거쳐 간 미주로의 이민자수는 약 15만 명 정도로 추정

3. 한국과의 관계

전통적으로 한국에 대해 우호정책을 고수해온 우방국으로 1962년 6월 수교 이래 우리의 대한반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1) 재 파라과이 한인역사

1965년 4월 파라과이로 농업이민이 시작되면서 현재 약 6,000여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데, 1965년 2월 부산항을 출발한 화란 국적 여객선 “보이즈 뱅”호로 농업이민선발대 10세대(75명)와 이민 예정가족 대표 25명이 1965년 4월 22일 아순시온항에 첫발을 디딤으로서 농업이민 원년을 기록하였다. 파라과이는 미주지역으로의 한국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해왔고,¹⁾ 현재 한국교민들 대다수가 수도 Asunción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국경도시에도 상당수 한인들이 거주하며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파라과이 한국대사관저에서



아순시온시 한인학교



파라과이 KOICA 사무실

2) 교민실태

교민들의 주요 진출 업종은 식품품 및 잡화판매업·의류 수입과 제조 및 판매업·전자제품 수입·스포츠 용품·서비스업 등이 주종을 이루지만,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을 겨

냥한 의류·화장지·문구·플라스틱 재생·청량음료 등 제조업으로의 진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콩과 옥수수·양계·육가공업 등 농축산 분야에서도 사업의 범위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민이 생산하는 계란은 파라과이 국내시장의 3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교민들은 이러한 경제활동이 파라과이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였기에 Dra. Zulma Espínola 대통령경제고문은 한국교민들의 사업장에서 없어진 Siesta관행으로 인해 주재국의 상거래 제도가 크게 발전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교민 1.5세·2세들의 파라과이 주류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시의회 의원·대학교수·의사·약사·변호사·회계사·건설기술자·국영공중파 방송사 아나운서 등 분야에서 30여 명이 전문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3) 한인교육문화재단 학교운영 현황

1992년 문교부인가를 득한 한국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일제 수업을 수행하고 있고, 한글교육을 위해 Asunción·Ciudad del Este·Encarnación·Pedro Juan Caballero·Coronel Oviedo등 주요 대도시에 한글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4) 한국업체 및 학계 진출 현황

(주)정보는 2004년 파라과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북동부 지역 Concepción주에 함께 가공공장을 운영하여 미국과 한국 등에 참기름을 수출하고 있고, 통일교 계열 (주)빅토리아는 2001년 파라과이 북부지방 Puerto Casado지역에 55만 헥타르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화학단지·바이오에너지단지·목축단지 및 조림단지 조성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강남대학교는 파라과이 사립대학인 콜롬비아 대학(Universidad Columbia)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초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대한민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대한민국은 2009년 7월 23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공동협약체 설립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nsultative Group)에 서명하여 한-Mercosur간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 등을 포함한 상호무역과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Mercosur공동협약체 설립은 궁극적으로는 남미지역 최대 경제공동체인 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Mercosur회원국 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투자관련

1) 외국인 투자자유화정책

1990년 파라과이 Rodriguez정부부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법(Ley 60/90)을 제정하여 복잡한 조세제도를 단순화시키고, 조세감면과 용지무상임대 및 마길라 제도²⁾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도로·통신·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SOC 사업의 부재, 밀수의 성행, 자체 생산시설 및 시장의 협소, 숙련노동인력의 부족, 정부기관의 관료주의 등에서 비롯된 비효율과 정치정세 불안 등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지인들 태도

현지 업계와 노동조합 등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배타적 시각이 거의 없고 환영하는 원인은 Itaipú발전소와 차스레타 발전소 건설에서 현지 업계와 외국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험에서 외국기업의 양호한 보수와 근무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3) 투자시 고려사항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 큰 제약이 없고,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투자여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연관 제조업분야의 기반취약으로 제품생산업 진출의 경우 관련 중간재·원자재·부자재의 조달방안에 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파라과이 시장은 협소하기 때문에 Mercosur시장을 목표로 진출분야

2) 외국 모기업이 제공한 기술·자본·부품 등 생산요소와 파라과이 노동력을 결합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 경우 모든 생산요소에 대한 관세 면제와 생산 활동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를 고려해야 하고, 근로자권익보호 노동법체제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있으며, 주재국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비용³⁾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진출유망분야

파라과이의 입지적 여건과 교육 및 생활습성 그리고 경제 발달도를 감안할 때 현재는 고품질·고기술 제품의 생산 전진기지로는 적합하지 않고,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시장을 이용한 섬유봉제·전기전자조립 등 노동집약산업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목재·피혁가공·식품가공 그리고 Mercosur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부품·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확대가 예측되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상권개척과 대외공동관세 회피를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의 상권침투를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저렴한 부품 공급선 확보와 현지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위해 부품생산 협력업체를 파라과이에 배치하는 것도 좋은 사업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Arigua Escuela y Colegio(초·중등학교) 축제

5. 파라과이 건설

1) 건설현황

파라과이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산업기반이 미미하며, 건설산업 분야가 GDP의 10%미만으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건설공공사업 분야의 정책은 공공사업통신부(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y Comunicaciones)가 주관하고 있고, 민간단체는 파라과이건설협회(CAPACO)와 토목기사협회(CPI)가 있으며, 약 500여개의 건설업체가 있지만 파라과이에 진출한 외국투자업체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파라과이 정부가 발주하는 주요 공공사업은 도로·항만 및 공항·수력발전 댐 등 일부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시멘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원자재나 건설장비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파라과이 건설협회



남미 토목 및 건축학회 학술대회

건설관련 정부기관

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y Comunicaciones(MOPC:공공사업체신부)
 Tel : 595-21) 4149-740 / Fax : 595-21) 4149-211
 Web-site : www.mopc.gov.py / Mail : sibarrola@mopc.gov.py
 Vicemisterio de Obras Públicas[공공사업 차관실]
 Tel : 595-21) 414-9000 / Fax : 595-21) 414-9350
 Mail : hsg@mopc.gov.py

3) 통관대행 수수료·각종 행정서류 확인 대행료 등

건설관련 민간기관

Cámara Paraguaya de la Industria de la Construcción [파라과이건설협회]
 Telefax : 595-21) 295-424
 Web-site: www.capaco.org.py / Mail : capaco@capaco.org.py
 Centro Paraguayo de Ingenieros [파라과이토목기사협회]
 Telefax : 595-21) 202-424
 Web-site : www.cpi.org.py / Mail : cpi@supernet.com.py

2) 아순시온 국립대학교 건설공학부

본인이 2008~2009년 자원봉사 자문교수로 근무했고, 2011~2012년 라틴아메리카 우수대학순위 101위에 이름을 올린 아순시온 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Asuncion)는 현재 재학생수가 약 4만 1천명이고, 건설공학부(Facultad de Ingeniería)의 토목공학과와 건축학과에 약 2천여명의 학생들이 토목구조·건설재료·콘크리트·측량·건축제도 분야를 전공 하고 있다.



학생들과 학술대회 후



아순시온 국립대학 전경



건설공학부 토목공학관

3) 건설분야 외국기업 투자 관련제도

파라과이의 건설분야 투자진출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개방되어 현지법인만 설립하면 건설자재와 장비판매 등 건설관련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단,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허가 절차에 있어서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에 등록된 국내 전문인에게 한하여 인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 전문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파라과이 내 모든 공공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공개입찰을 통해 수주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외국기업은 국제공개입찰(Licitación Pública Internacional)에 한하여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공공사업 발주시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응찰조건이 상이할 수 있지만 응찰을 희망하는 외국 업체는 의무적으로 자국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치

파라과이는 내·외국인 투자자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차원의 특별한 우대조치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주변국들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과 풍부한 수자원 및 전력 그리고 낮은 조세부담과 임금 등이 우대조건이라 할 수 있다. 파라과이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진흥법 제 60/90호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 산하 산업개발과(Dirección de Desarrollo Industrial)와 투자위원회(Consejo de Inversiones)에서 승인받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각종 세제 혜택을 보장한다.

5) 추진중인 주요 공공사업

(1) Franja Costera 프로젝트

아순시온시와 공공사업통신부가 IDB은행으로부터 1억불의 유상차관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도 아순시온항만지역 내 12만㎡의 부지에 3만㎡의 대민서비스용 정부청사와 강변외곽도로 및 주택단지 건설과 환경조경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Itaipu 수력발전댐

(2) 송배전망 확충 프로젝트

공공사업통신부(MOPC)와 국영전력공사(ANDE)가 파라과이를 남미 에너지통합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7억불의 예산을 투자하여 브라질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Itaipu 수력발전소⁴⁾와 아르헨티나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Yacyretá 수력발전소⁵⁾를 연결하는 대규모 송배전망 구축사업으로 사업자금은 IDB·BIRF 등 국제금융기구와 BNDES(브라질개발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거나 국내의 민간업체의 투자 참여로 조달할 예정이다.

(3) 대규모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파라과이 국내 경제안정과 신규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IDB·BIRF·CAF·JICA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확보한 3억불로 2011년부터 영세민 주택건설 사업과 지방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주요 도로망 확충을 위해 4.5억불 규모의 도

로 건설 컨세션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낙찰업체에게 30년간 컨세션 권리를 양도토록 할 계획이다.

(4)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영국제 석유탐사업체인 CDS Oil&Gas Group PLC사가 지난 6년간 3천만불을 투자하여 파라과이 북서부 소재 Boqueron 지역에서 기초탐사를 실시한 결과 243백만 배럴의 원유와 1610억 ft³의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이 확인되어 정밀 탐사 실시를 위해 투자자들과 협의 중이다.

(5) 신규 수력발전소 개발 계획

파라과이 동부지방 Región Oriental 소재 Caaguazú주와 Alto Paraná주 사이에 위치한 Yguazú강에 100MV터빈 두대를 설치하여 연간 183GW의 전력생산을 목표로 하는 Yguazú 수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총 사업비용 2억 6천만 달러 중 1억96백만 달러는 일본 JBIC은행을 통한 유상차관을 연이율 0.75%, 10년 거치 40년 상환조건으로 도입할 예정이고, 나머지 비용은 파라과이 국영전력공사(ANDE)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6. 맺음말

파라과이는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이고 비옥하며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아열대성 입지를 가지고 있고,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과 풍부한 에너지자원 및 수자원환경 등에 기인하여 농축산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대농들이 파라과이에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엔카르나시온 카니발

4) 동부지역 Alto Paraná주 소재

5) 남부지역 Itapúa주 소재



산후안 하계 휴양지



빨라르 원주민 마을

또한,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역내 경제대국인 브라질·아르헨티나와 접경하여 양국을 상대로 재화와 서비스보급의 중심지로 발전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사회불안 요소가 적으며, 연중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수출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투자 사업별 수입품에 대한 임시 수입관세 면제제도 등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보장되고, 주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소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주정부를 채널로 외국투자자들에 대해 모든 지원을 제공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등 투자유치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Itaipú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곡창지역(대두·밀·옥수수·해바라기 등)으로 저렴한 산지 농산물을 이용하여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희망하는 우리의 농산물 가공업체들의 진출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일본·독일 등 외국계 농업 이민자들이 많아 농업 인프라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면서 대부분 협동조합(Cooperativa)형태로 농작을 하고 있지만 주로 대농으로 농작에만 종사할 뿐

가공 산업은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가공업·돈육 및 사료생산사업·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양계산업 등의 분야에 진출하면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세계 곡물수급 불안정과 더불어 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의 수요가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파라과이가 농업에 적절한 기후 및 농업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인 파라과이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한국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이오에너지 시범단지조성 등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